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

장 혜 선*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최 보 가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현대의 지식화·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창의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기는 창의성의 결정적 시기(Torrance, 1962)이며, 창의성의 내적 강화의 시기(Lesner & Hillman, 1983)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Jahson, 1985; Torrance, 1962, 1984; Torrance & Sufer, 1999)에서는 아동 중기의 창의성 급락 또는 U곡선 현상이 제안되면서 창의성이 죽은 시기(Albert, 1962)로 보는 견해와 창의성이 잠복된 시기(하주현, 2001) 또는 질적 변화의 시기(Dudek, 1974)로 보는 상반된 견해가 보고되고 있다.

창의성의 핵심요인은 개인이며 개인이 존재하여야 창의적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산물이 산출된다. 그러나 창의적 요인이 개인이라 할지라도 창의성은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개념으로 개인의 다양한 역량은 환경적 조건 및 다양한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창의성을 발현시킨다(김명숙, 2001) 따라서 창의성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요인을 동시에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원경, 우남희, 2002)고 보고된 바 있으나 연구가 비교적 미미한 실정이고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창의성 발달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이 창의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D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120명에게 자기효능감 질문지와 부모의 양육태도 질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고, Torrance 창의적 사고력검사 ‘한국판 TTCT(언어)검사’와 ‘한국판 TTCT(도형)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언어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도형창의성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정교성, 과제 난이도 선호와 제목의 추상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아버지 애정-거부 양육태도는 언어 창의성 및 도형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언어 창의성(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도형 창의성(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애정-거부 양육태도는 언어 창의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도형 창의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언어 창의성 및 도형 창의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